성 · 경 · 신의 사상 토대와 수도 자세 연구

금교영*

〈차 례〉

1. 머리말
2. 성(誠)
3. 경(敬)
4. 신(信)
5.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성 · 경 · 신의 사상 토대를 먼저 고찰하고, 그 다음 그것의 수도 자세를 연구하고 있다. 성(誠)은 천의 본연지성으로서 인간이 닮아야 할 것이고, 인간은 성을 지향 존숭하는 가운데 자신의 본성을 온전히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은 그렇게 하여 성을 품부(稟賦)해서 자신을 온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상 토대로 증산사상과 대순진리는 사람은 성의 자세 즉 상제에 대한 지극한 존숭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상제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 알 수 있고, 따라서 상제를 옳게 신앙할 뿐만 아니라 수도도 잘 할 수 있다고 한다. 또 경(敬)은 천의 위대성과 위력에 대한 반응인 외경, 공경이다. 사람은 옛날부터 천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을 가지

* 영남대학교 철학과

고 있었고, 그래서 천을 거역하거나 배반하려 하지 않았다. 이런 사상을 토대로 증산사상과 대순진리는 사람은 경의 자세 즉 상제에 대한 공경과 외경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상제의 말씀을 의심이나 사심 없이 받아들이고 실천을 한다. 따라서 사람은 경의 자세로 신앙하고 수도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신(信)은 예로부터 오륜(五倫)·오상(五常)의 하나로 간주하면서 대인관계에서 지켜야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왔고, 또한 신이 없는 가운데 아무 일도 성사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이런 사상을 토대로 증산사상과 대순진리는 신을 가져야만 상제의 말씀을 옳게 알고 이해하며 진정한 실천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서, 참된 신의 자세로 신앙하고 수도하라고 한다. 이상과 같이 성·경·신을 본래적 의미와 시대상황 별 실용적 의미를 대체적으로 고찰해 볼 때, 그것이 우리 민족 종교의 신앙 자세 내지 수도 자세로 충분히 활용할만하다는 것을 밝힐 수 있다.

주제어: 성, 경, 신, 천, 상제, 수도 자세, 대순진리

1. 머리말

우리 민족 종교가 조선 후기에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살리고 우리 민족 문화의 긍지를 드높이는데 큰 기여를 한 것임에 틀림없다. 이런 종교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그 종교의 좋은 점을 드러내 소개하고 다른 면으로 이용해 보는 것이 그 종교에 대한 보답으로도 그리고 그 종교의 가치 면으로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우리가 우리 것을 소중히 여기고 드러내 보이고 널리 이용하지 않으면 누가 그렇게 하겠으며, 또한 우리가 우리 것 중에서 가치 있는 것을 들춰내어 사용하지 않고

남의 것을 그저 좋은 양 가져다 사용하려는 의식이 과연 우리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겠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필자는 우리 민족 종교에서 신앙의 훌륭한 태도 내지 자세로 간주하고 있는 성・경・신을 동양의 옛 고전부터 근대까지 문헌을 통하여 사상적으로 살펴본다. 그 다음 이렇게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민족 종교는 성・경・신을 어떻게 해석하면서 수도 자세로 혹은 신앙의 훌륭한 자세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신이 수도 자세로 혹은 신앙의 훌륭한 자세로 얼마나 적합하고 유효한지 심도 있게 고찰해 본다. 그래서 성・경・신이 수도 자세로 혹은 신앙의 자세로 충분히 적합하고 유효하다면, 성・경・신을 신조의 삼요체로 삼고 있는 대순진리교의 우수성을 인정할 수 있다.

실로 우리 민족의 전통사상이라면 무속신앙과 유불선의 사상이라 할 수 있고, 또한 덧붙여 조선 말기에 자생적으로 나타난 동학사상, 원불사상 그리고 증산사상이라 할 수 있다. 후자의 사상들은 앞의 사상들을 융합하여 세계와 자연 그리고 인간을 좀 더 밝고 희망 있게 바라보고 좀 더 자세히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후자의 전통사상을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여기 논의의 폭을 좁혀서 그 전통사상 중 증산사상과 대순진리에 나타난 성・경・신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성・경・신은 우리 민족에게 전승되어 오던 천에 대한 마땅히 있어야할 의식태도이기도 하며, 19세기 어려운 역경시기에 우리 민족이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신앙 태도이었기"[1] 때문이다.

본 연구는 먼저 동양 고전에 나타난 성・경・신의 본래적 의미와 그 이후 성・경・신의 시대상황 별로 사용된 의미를 살펴본다.

---

1) 안종운, 「성・경・신 갖춘 人間像論」, 대순사상학술원, 『대순사상논총』 제12집, 2001, pp. 83-84, pp. 87-89 참조.

그리고 성·경·신이 우리 민족 종교에서는 어떻게 해석되고 그리고 신앙을 위한 수도 자세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고찰해 본다. 즉 2장에서는 성을 그 본래적 의미와 시대상황 별 사용된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민족 종교에서는 성을 신앙의 태도나 수도 자세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고찰하고, 3장에서는 경을 그 본래적 의미와 시대상황 별 사용된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민족 종교에서는 경을 신앙의 태도나 수도 자세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고찰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신을 그 본래적 의미와 시대상황 별 사용된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민족 종교에서는 신을 신앙의 태도나 수도 자세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고찰해본다.

2. 성(誠)

1) 성의 사상 토대

성의 자구적 해석에 따르면, 성은 말씀 언(言)과 이룰 성(成)의 합성어이기 때문에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루도록 진력을 기울인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성은 정성(精誠), 성심(誠心), 성의(誠意) 등의 개념으로 완성해 사용하고 있다. 이 개념들을 용도 측면으로 살펴보면, 예컨대 '정성을 다 한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장만한다', '성심을 다 한다', '성의를 다 하자!', '성의 있게 일을 한다' 등의 표현이 일상에 많다. '정성', '성심', '성의'의 개념 모두에 성이 들어가 있다. 정성은 활력적 정과 본체적 성이 합쳐진 즉, 내·외적 존재 모두가 합쳐진 개념이고, 성심과 성의는 심과 의지가 주체이고 성이 그 주체를 형용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정성은 생명과 마음의 합성의미이고, 성심과 성의는 지극한 마음과 지극한 의지란 뜻이다.

문헌상에서 성 개념의 연원을 찾는다면, 『書經』에서 이르기를

"鬼神無常享 享于克誠"[2]이라 하는데, 이 때 성은 귀신에게 바치는 인간의 지극한 마음이다. 또 『書經』에서 이르기를 "濬哲文明 溫恭允塞"[3]라 하는데, 준철문명의 댓구절로 온공윤새를 사용하면서 말빨을 세운다. 여기서 윤새가 성의 역할을 함으로 성의 의미를 미뤄 짐작해 볼 때, 큰마음, 본연의 본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럼 귀신에게 바치는 지극한 마음, 큰마음, 본연의 본성을 종합해 보자. 원시 사회에서 인간들은 귀신이라면 무서워하고 경외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런 대상에게 바치는 마음에는 지극한 면이 있다. 그리고 큰마음이란 온 마음이고 마음 통째이다. 본연의 본성은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마음 상태가 아니라 불변하고 한결같은 마음 상태이다. 그러므로 『書經』에 나타난 성의 의미는 '지극한 마음, 온 마음, 불변하고 한결같은 마음'이라 할 수 있다.

주나라 시대에 중국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역(易) 사상을 편찬한 저술 『周易』에서는 "閑邪存基誠", "修辭立其誠"[4]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성은 공자가 집필한 『中庸』에서 사용하는 성의 의미와 비슷하다. 이 두 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의 의미는 『書經』에서 사용한 '본연의 본성, 온 마음'의 의미와 비슷하게 '본체적 본성 내지 덕성의 마음'이다. 그리고 중국 전국시대 때 유학의 정치이념인 왕도정치를 제후들에게 유세하러 중원천지를 돌아다니고 孔子의 유학을 좀 더 발전시킨 맹자가 그의 역작 『孟子』를 저술했는데, 여기서 맹자는 성을 "反身而誠"[5]이라 하듯이 '신체에 상반되는 것', 실용에 대조로 '본체'라 생각하고 있다. 이처럼 맹자는 성을 '현실에 나타나고 움직이며 변화무상한 것의 근원이 되는 또는 골격이 되는 불변적인 본체'라 보고 있다.

---

2) 『書經』, 尙書, 太甲 下.
3) 위의 책, 虞書, 舜典.
4) 『周易』, 乾卦, 文言.
5) 『孟子』, 盡心章句 上.

시대를 훨씬 뛰어넘어 송나라 주자는 “성을 하늘의 본성이니 천리의 본연이라”[6] 하였다. 유학을 인성론이나 예학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천도사상, 성리사상까지 발전시킨 송대 성리학에서는 성의 의미도 성리학적으로 심화한다. 그래서 성은 하늘의 본성이요 성을 닮아가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하늘의 본성인 성은 진실무망하며 그 형체를 헤아릴 수가 없고, 반대로 인간의 마음은 허실유망하며 그 형체가 곧 드러난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항상 하늘의 성으로부터 그 온전함을 부여받아야 한다. 그래서 주자는 誠을 하늘의 본성이라 생각하고 그 모습은 진실무망하다고 하며, 인간의 심성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성을 품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선 시대 이율곡은 성을 본체론적으로 태극이며 지선이며, 무위이며 미발이라 한다. 태극은 세계의 원형이고 지선은 지극한 선이고 무위는 인간의 개입이 없는 순수 상태이고 미발은 아직 형상화되지 않음을 일컫는다. 이처럼 율곡에게는 본체론적 성이 우주의 원형이고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원초적 상태이고 지극한 참된 상태이다. 그리고 그에게 현실론적 성은 실심지성(實心之誠)으로서 생명을 영위하는 현실생활에서 기품에 구애받으나 기질의 편벽되는 것을 극복하고 순수하게 천성을 회복하려는 상태이다. 따라서 율곡이 말하는 “성은 하늘에 있어서는 실리로써 세상을 가꾸고 보살피는 공을 이루고 인간에게 있어서는 실심으로써 감통하는 효험을 이루는 것이다.”[7] 조선 후기 정약용은 성을 진실 무망한 것이라고 배척하지는 않지만, 그와 같이 진실하지만 형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별로 바라지 않고 실학자답게 실사구시로 기여할 수 있는 성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천을 상대로 닮아가

---

6) 『中庸』, 第20章, 朱子 註; “誠者 眞實無妄之謂 天理之本然也.”

7) 『栗谷全書』, 卷6, 雜著; “對天以實理 而有化育之功 人以實心 而致感通之效 所謂實理實心者 不過曰誠而已矣.”

려는 진실한 계신공구와 신독을 성이라"[8] 하고자 한다.

조선말에 동학을 창시하여 조선 사회를 개화하려고 한 수운 최제우는 "정성을 드리어 지극히 천주를 위하는 사람은 병이 낫고 정성을 드리지 않고 도덕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병이 잘 낫지 않으니"[9] 라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정성이 몸과 마음을 의미하며 혼신과 혼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수운은 여기서 성을 상천 마음보다도 하생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 또 수운은 "모든 의심을 깨쳐버리는 것은 성을 지키는 연고요 …… 대저 이 도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성이 된다"[10]고 하였으며, 최시형도 "신이 있은 뒤에 성할 수 있고, 성이 있은 뒤에 통할 수 있다"[11]고 하였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성이 온전히 보존되고, 믿음이 없으면 성을 보존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리고 마음을 방심으로부터 지키면 성을 보존하지만, 마음을 어지럽히고 재물에 혼돈하면 성을 보존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를테면 수운은 "정성이 이루어지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내 마음을 잃지 않았는지 헤아려 보라"[12] 했다. 마음이 의혹에 동요되거나 무엇에 빼앗길 때, 성이 이뤄져 있지 못하다는 말이다.

이상과 같이 전통사상에서 성을 정리해 보자면, 첫째로 성은 하늘의 본성이고, 둘째로 인간은 자신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다. 셋째로 하늘의 본성 즉, 성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인격을 완성해 가는 것이며, 넷째로 믿음이 있으면 성이 이뤄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이 어디에도 현혹되지 않을 때 성이 보존된다고 한다.

---

8) 『儒敎大辭典』, 박영사, 1990, pp. 702-704.

9) 『東經大典』,「布德文」; 이항녕, 「誠의 현대적 의의」, 대순사상학술원, 『대순사상논총』 제9집, 2000, p. 37.

10) 『東經大典』, 「修德文」; "萬惑罷去 守誠之故也 ……大抵此道 心信爲誠."

11) 위의 책, 「修德文」其他, 최시형 참조.

12) 위의 책, 前八節 ; "不知誠 之所致 數吾心之不失."

2) 성의 수도 자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은 선진유학 시대부터 동양사회에 전승되어온 의미심장한 개념이다. 이 개념에 의하면 “성은 하늘의 본성이고, 인간의 성이 본받아야 할 것이다.”[13] 유학의 천관에 따르면 하늘은 지극하고 온전하며 무변하다. 이에 반해서 인간은 그의 성이 암시해 주듯이 주위의 물성이나 자성(自性)에 감응하여 변하고 허량해진다. 그래서 인간은 그의 본성을 온전히 유지하든가 채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천성을 본받아할 운명이다. 물욕에 이끌려서 자신 마음을 잃어버리고 존심하지 못할 때, 인간은 천으로부터 성을 부여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권력이나 명예, 색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자신 마음의 온전함을 잃어버리거나 흩으려 버렸을 때, 하늘로부터 誠을 부여받아 자신의 마음을 온전하게 만들어야 한다.[14]

조정산(1895-1958)은 그런 지극한 성을 인간이 마땅히 지녀야 할 태도로 보고 있다. 하늘의 본성인 성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그 성을 발휘하도록 노력할 때, 그 인간은 온전한 인간이 되고 천도를 따르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순진리에서는 “성은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는 한결같이 상제를 받드는 일이라”[15] 한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이 여러 세상살이로 흩으려지고 허량해지고 그리고 온전함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성

---

13) 『中庸』, 제1장 率性之篇 참고; “率性(誠)之謂道.”

14) 현재 인성교육의 방안을 규제와 규율로 일삼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개인이 개조되는 방법은 규율 엄수와 징계, 감독과 제재의 형태로 이뤄진다”(노상래, 「헤테로토피아, 제3의 눈으로 읽는 만주」,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제70호, 2014, pp. 4-5.)는 사고가 있다. 그 반면에 여기 성의 수도 자세를 통한 인성교육은 내적 심성교양의 인성교육 방안이라 할 수 있다.

15) 대순진리회 교무부, 『大巡指針』,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pp. 51-55.

을 품부한다, 부여받는다고 한다. 이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동양 사회에서 일컫는 하늘은 곧 자연이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그 본성을 닮고 부여받는다는 것은 곧 자연으로부터 그 본성을 닮고 부여받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천성을 품부하여 우리의 마음을 교양한다는 것은 자연을 상대해서 그와 동화하고 범아일체해서 인성을 교양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자연과 동화하고 범아일체 하여 인성이 교양되고 우리 마음이 온전해질까? 이것은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나태한 본성 교양이다. 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염원을 지향할 수 있는 초월적 대상이 있고, 그리고 그를 향한 지극한 염원이 있을 때, 그 염원의 보상심리는 더욱더 강렬해진다고 한다. 아마 이렇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대순진리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성실한 인성 교양을 위해서 상제에 대한 지극한 염원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성은 상제를 참된 마음으로 믿고 그 뜻을 받들며, 그런 마음이 변치 않는 것이라"[16] 정의하고 있다.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은 꾸준한 수행을 하여 사특한 생각과 나쁜 생각이 사라지고 맑고 진실하게 피어있는 정직한 마음이다. "마음이 이렇지 못하고 참되지 못하면 뜻이 참되지 못하고, 뜻이 참되지 못하면 행동도 당연히 참되지 못하여 결국 수행의 목적인 도통진경에 이를 수가 없다."[17]

그래서 "대순진리에서 성은 일차적으로 상제에 대한 인간의 가장 올바른 태도이고, 이차적으로 인간 자신이 평소에 살아가면서 가져야할 생활 태도이다."[18] 일차적 태도에 관해 언급하자면, 우리가 진정성 있는 신앙을 하려면 먼저 신앙 대상의 존재를 확신해야 한다. 그가 있음을 믿지 않고는 결코 그에 대한 신앙이 진실하

---

16) 위의 책, pp. 52-54.

17) 위의 책, p. 76; '心不誠 意不誠 意不誠 身不誠 身不誠 道不誠.'

18) 이재호, 「유학의 수양론과 대순진리의 수도론에 관한 고찰」, 대순사상학술원, 『대순사상논총』 제12집, 2001, pp. 327-328.

지 않다. 그 다음 신앙하는 분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아무리 그가 있다는 것을 믿을지라도 그의 말씀에 따르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게 되어 우리를 깨우쳐 선도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지 못하고 변하면, 도리어 애초에 하지 않음보다 못하고 번잡함만 야기한다. 이차적 태도를 언급하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극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도 온전해지고 하는 일마다 온전히 잘 되어간다. 예컨대 일상생활에서 성의 태도로 살아간다면, 그 인간은 성실한 사람이 되고, 약속에서는 신성(信誠)의 사람이, 부모에게는 효성 있는 사람이, 국가에는 충성스런 사람이 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대순진리에서는 성을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대순에서는 성을 대순진리의 삼요체(三要諦) 가운데 첫째로 보고 있다. 거기서 풀이하기를 '성은 상제에 대한 지극한 마음이다.' 이 지극한 마음이 대순진리를 실천할 마음의 세 가지 중 첫 번째이다. 그것은 "도가 나요, 내가 곧 도라는 경지에서 마음의 영혼을 통일하여 세상 모든 변화의 제도에 이바지할 것이니 마음은 한 몸을 주관하며 전체를 통솔 이용(理用)하나니 그러므로 한 몸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게 하는 것은 오직 마음에 있는 바라,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것이니 정성이란 늘 끊임없이 조밀하고 틈과 쉼이 없이 오직 부족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19] 한다. 따라서 성은 신앙 차원에서는 대순진리의 말씀을 가장 잘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는 수도 자세 중 하나이며, 개인 차원에서는 자기완성 혹은 자아성숙 내지 인성교양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

19) 대순진리회 교무부, 『大巡眞理會要覽』, 대순진리회 출판부, 1969, p. 16.

3. 경(敬)

1) 경의 사상 토대

경의 의미는 다양하다. 존경의 의미로부터 경계의 의미를 넘어서 경외의 의미까지 이른다. 우선 경의 의미를 천인합일사상이나 천도사상에서 살펴보자. 『中庸』에서 "성은 하늘의 도이요, 성하려는(誠之) 것은 인간의 도라"[20] 말한 것은 너무나도 유명한데, 성하려는 것은 인간이 하늘을 닮으려는 것이고, 천도를 따르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마 인간은 성 혹은 천도를 흠모하고 공경하고 관심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뤄지지 않고는 결코 성할 수 없으며 천도를 따르지 못한다. 그래서 성하려면 성에 대한 공경을 해야 하며 천도에 대한 공경을 해야 한다. 따라서 "경이 곧 성하기 위한 혹은 천도를 따르기 위한 방편이라"[21] 할 수 있다.

선진유학에서는 경을 지성이든 덕성이든 그것의 함양을 위한 공부방법이라 생각하고 특히 예절과 관련된 생활태도나 의례학습을 위한 공부로 중요시 하고, 송대 성리학에서는 격물치지와 관련된 수양법으로 중요시 하였다. 예컨대 『禮記』의 곡례편에서 이르기를 "毋不敬也"[22]라 하는데, 공경의 자세가 없으면 예를 지킬지라도 진정으로 예를 지키는 것이 아니요, 공경의 마음이 없으면 예를 행할지라도 진정으로 예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다. 그래서 언행에 있어서 늘 삼가 조심하고 약속을 잘 지켜야 함을 강조한다. 『論語』에서는 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갖춰야하는 마음 자세로 보고 있으며, 이 경은 인간들이 후천적으로(a posteriori) 인위

20) 『中庸』, 第20章; "誠者 天地道也 誠之者 人之道也."
21) 『二程全書』, 遺書, 明道語; "誠者 天之道 敬者 人事之本 敬則誠" 참조.
22) 『禮記』, 曲禮篇; "曲禮曰 毋不敬 ……."

적으로 노력해서 얻어지는 마음 자세라 한다. 그래서 성과 비교해 본다면, 성은 선천적인 천도의 문제라면 경은 후천적인 인도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송나라의 성리학자 정호는 경이 성을 실현하려는 인간의 실제 공부라고 보아, "성이 하늘의 도이며 경은 인사(人事)의 근본이니 경이 곧 성이라"[23] 하면서 경을 현실에 실현하는 것이 결코 쉽거나 간단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정이는 경을 주일(主一)이라면서 한 곳에 마음을 집중하여 심신을 통일하는 경지를 말하고 있다. 아울러 주일한다는 것은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는 가운데 또는 불편부당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밖으로 발현되기 이전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즉 중(中)과 내(內)의 의미가 복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정이의 경은 '存天理去人慾'이라는 구절에서 나타나듯이 의를 실천하기 위한 마음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늘의 이치에 바탕을 두고 인간의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게 한다'는 구절은 '인간의 무슨 일을 옳게 하도록 한다'는 말이며, 경이 옳음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성리학을 대성시킨 주자의 "心性惺惺"[24]에 따르면, 마음의 본체는 스스로 허명하여 많은 이치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욕심에 가려지지 않고 늘 밝은 상태를 보존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욕심을 제거하기 위해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각성시키고 경건해 있어야 한다. 마음을 각성케 하고 경건해 있기 위해서 그런 각성과 경건의 태도를 가지기 위한 즉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바로 "이 자세야말로 주자는 경이라 했다."[25] 이와 같이 정주학파들은 경이 공부하기 위한 마음의 자세이고 인(仁)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이라 생각하고 있다.

---

23) 『儒書』卷1; "誠者 天之道 敬者 人事之本 敬則誠."
24) 『朱子語類』 제12권.
25) 위의 책, 같은 권 참조; "敬有物 只如畏字相…."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 이퇴계는 "거경궁리하여 이치를 상세히 엄밀히 경험해야만 비로소 참된 지식을 얻고, 경을 중심으로 하여 능히 마음에 별다른 것이 없어야 비로소 실득이 된다"[26]고 했다. 참된 지식을 얻거나 덕을 얻는데 경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퇴계는 평소에 인간의 올바른 면을 갖추기 위해서 예를 잘 지키라 했지만, 학문하는데 관심이 많았던 그는 제자들에게 늘 경 공부 게을리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수운 최제우는 "공경(恭敬)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거든 잠시도 우러러 사모함을 게을리 하지 말라! 내 마음이 거슬리고 우매하게 됨을 두려워하라!"[27] 했다. 두려워 경계하고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어 혼란해지게 되고 몸과 마음이 불편해진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지척을 분간하지 못하고 불행해진다. 그러므로 하늘을 우러러 사모하는 경을 열심히 하라! 그러면 공경하게 되어 그런 혼돈과 불행을 막을 수 있다. 이런 경 사상은 성리학의 '주일무적', '심성성성'과 불교의 '적정'을 바탕으로 삼고, 그리고 선진유학의 '천도상응', '성지' 즉 '하늘 본성에 닮음'을 지향하여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운의 경은 한울님에 대한 몰입과 한울님의 발현을 위한 공경을 의미한다.

2) 경의 수도 자세

경의 의미는 다양하나 "김덕찬이 상제를 대함이 항상 거만하지만 상제께서는 개의치 않으시고 도리어 덕찬을 우대하시니 하루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서 공사를 행하실 때 크게 우뢰와 번개를 발하니 덕찬이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피하려 하니 꾸짖어 말씀하시길

---

26) 『退溪集』「답이숙헌」.
27) 『東經大典』, 八節; "不知敬之所爲 誓不彊於慕仰 恐悟心之悟味."

‘네가 죄 없기를 어찌 두려워 하느뇨.’ 덕찬이 더욱 황겁하여 벌벌 떨고 땀을 흘리면서 어찌 할 바를 모르더니 이후에는 상제를 천신과 같이 공경하고 받들었도다”[28]는 것을 볼 때, 『典經』에서는 경을 ‘두려워하여 우러러 받들고 공경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典經』에서 경을 ‘두려워하여 우러러 받들고 공경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데는 그 대상에 대한 종교적 감정이 발동하기 때문이다. 상제에 대한 섬뜩한 경외심이 발동하여 그분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경으로 표현되어 바로 ‘두려워하여 우러러 받들고 공경하는’ 자세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천지변화를 자유자재하신 상제의 권능에 대한 두려움과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면서 주재하는 상제의 권능에 대한 경외의 표현이라”[29] 할 수 있다.

『典經』에 이르기를 “상제께서 광구천하 하심은 김일부의 꿈에 나타났으니 그는 상제와 함께 옥경에 올라가 요운전에서 원신이 상제와 함께 광구천하의 일을 의논하는 것을 알고 상제를 공경하여야 함을 깨달았다”[30] 한다. 김일부가 공경해야겠다고 깨달은 것은 상제가 천하일을 의논하는 지극하심과 권능에 대한 존경과 진정한 황송의 결과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경이 존경과 황송의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며, 지극히 경건한 마음으로 상제를 모셔야 한다는 마음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존경하고 황송한 마음으로 지극히 경건한 마음으로 상제를 모셔야 한다는 대순의 경 정신은 수도 자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또 신앙생활의 핵심적 태도라 간주될 수 있다. 이를테면 수도자는 상제를 경의 공경한 마음으로 우러러 봐야 하며, 한 몸

---

28) 대순진리회 교무부, 『典經』,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9, 교운1장 23절.
29) 윤기봉, 「삼요체의 실천수도론적 의미」, 대순사상학술원, 『대순사상논총』 제10집, 2000, pp. 230-231.
30) 『典經』, 예시3절.

으로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주일무적으로서 "몸과 마음을 일치되게 하여야 한다."[31] 그런데 경을 하지 않고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거만에 빠지기 쉽고 마음이 곧장 해이해져 수도는 물론이거니와 신앙도 할 수 없다.

실로 수도자가 경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한다면 감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상제의 계심을 확신하고 경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감응이 있고 신앙이 생길 수 있다.'[32] 또 기도에 있어서도 상제를 두려워하는 경외심 즉 섬뜩한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기도에 있어서 외경이 생기고 정신과 몸이 합일되고 집중되는 주일무적이 유행한다. 수도자는 상제를 두려워하는 데서 모든 실천이 나올 수 있으므로 행동에 있어서 거만은 수도자의 자세가 될 수 없다. 상제를 외경하고 흠숭하는 자세가 곧 수도 자세라 할 수 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서 볼 때, "대순진리의 수도자는 참된 신앙을 하려면 천지신명을 인정하고 그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야 한다. 즉 경천과 수도를 신조로 삼고 생활함으로 비로소 상제에 대한 공경이 근본적으로 될지어다."[33] 우리는 초월자에 대한 경외가 없으면 행동이 조심 없고 마음이 두려워하는 데가 없다. "천하고금의 악행은 모두 불경에서 생겨남으로,"[34] 우리가 두려운 데가 없으면 나쁜 짓도 못된 언행도 서슴없이 행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데가 있으면 조심하게 되고 마음도 다잡는다. 즉 외경, 공경, 흠숭이 있음으로써 수도가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서 상제가 있고 그래서 상제에 대한 경이 잘 이뤄지는 가운데 수도가 가능해짐을 짐작할 수 있고, 경이 실행되지 않는 가운데 참된 수도가 이뤄지지 않음을 알

---

31) 위의 책, 권지1장 19절 참조.

32) 『大巡眞理會要覽』, p. 15 참조.

33) 정대진, 『대순사상논총』, 도서출판 一心, 2003, 제10집 「경에 대한 이해」, p. 267.

34) 臺灣商務印書館, 『魯齊遺書』卷3, 1981, 「論明明德」, p. 316.

수 있다. 그러므로 경이 수도 자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신(信)

1) 신의 사상 토대

신은 옛날부터 사람이 말한 대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해 왔다. 『說文』에서는 "신을 사람 인(人)자와 말씀 언(言)의 합성어라고 하면서"[35] 신을 사람이 말을 진실하게 실천하는 것으로 의미해 왔다. 사람이 말대로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일부러 꾸며대면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다. 선진유학 때 신을 인간의 덕목으로 존중하면서 오륜의 하나로 여겼다. 그래서 인간은 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며,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여겼다. 공자가 저술한 『論語』에서 "벗과 사귐에 신의가 없는가?"[36]하였고, 맹자는 그의 저술에서 "사람이 지켜야할 오륜 가운데 붕우유신이 있다"고[37] 하였다. 신의가 벗 사이에서는 최고의 덕목이고, 사람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윤리 가운데 하나가 '벗 사이의 신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다. 신은 벗 사이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덕목이다. 정치에 있어서도 신이 있어야만 그 사회를 잘 움직여 가고, 경제에 있어서 신이 있어야만 시장행위와 교환행위가 원활히 이뤄진다.

불교에서도 신이 많이 언급되는데, 이를테면 불교의 가르침을 수행할 때 처음 불문에 입문하는 자는 신을 우선으로 하면 그 가

35) 『說文』, 三篇上; "信誠也 從人言"
36) 『論語』, 「學而篇」.
37) 『孟子』, 「滕文公 上」.

르침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신을 앞세우지 않고 지혜만 얻으려 한다면 불교의 가르침이 잘 다가오지 않는다. 그래서 불법에 입문하는 초심에는 무엇보다도 신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 이유는 "신이 도의 으뜸이며, 공덕의 어머니이고, 모든 선법을 보장하기"[38] 때문이라 한다. 알다시피 불교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공부이다. "불교의 교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수행으로 실현하는 것 즉, 진리대로 사는 것을 가르치지만, 그의 신은 깨달은 자 즉 붓다의 교법을 신봉하고, 그 지혜를 연마하며, 진여에 이르는 마음공부이다."[39]

수운은 "한울님을 마음과 몸으로 생생하게 체험할 것을 강조하면서, 성・경・신의 세 가지 덕목 중에서 한울님을 진심으로 믿는 신이 가장 근원적이라고"[40] 가르쳤다. 중세 초기에 이교도들에게 그리스도교를 옹호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교설했던 호교가의 한 사람인 테아툴리아누스는 '믿어라! 그러면 너는 알게 되느니라! 하느님의 말씀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41]고 말했다. 이처럼 한울님이나 상제를 믿음으로써 그 한울님이나 상제를 만나게 되고 그 말씀을 알게 된다. 우리 인간들의 조그마한 머리로 한울님이나 상제의 넓으신 마음과 말씀을 지성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다. 오히려 믿는 가운데 그 마음과 말씀을 알게 되는 등 믿음이 이해나 더 나아가 신앙의 첩경이라는 것이다.

---

38) 『華嚴經』, 「제육현수품」.

39) 쓰보이 순에이, 『淨土敎槪論』, 도서출판 홍법원, 1996, p. 228.

40) 최동희 외, 『한국의 민속・종교사상』, 삼성출판사, 1997, p. 483.

41) 이 슬로건은 초기 호교가(Apologist) 특히 테아툴리아누스가 하느님의 말씀을 이교도들의 비판으로부터 옹호하기 위해서 제시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하느님의 말씀을 피조물인 인간의 조그마한 머리로 이해 분별하려들지 말고 우선 믿어라! 그분의 말씀은 인간의 이해 범위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니, 믿는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게 되도록 하라!'고 했다.

이런 측면에서 신이 성과 경보다 더 근원적이라 한다. 수운이 "대저 세상 인도(人道) 가운데 믿을 신(信) 자가 주장일세 대장부 의기범절(意氣凡節) 신이 없으면 어데냐"[42] 하는데, 그가 보기에 인간이 가야할 길 중에 믿음보다 더 좋은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남자 대장부가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여러 예절 가운데 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반문하면서, 신이 그 으뜸임을 암묵적으로 언표하고 있다.

2) 신의 수도 자세

신을 전통 사상적 측면으로 살펴보면, '신을 앞세우지 않고서는 지혜가 얻어지지 않는다'는 불법 사상이 있고, '오직 믿어라 그러면 알게 되니라'의 그리스도 호교가 사상이 있고, 그리고 수운·해월도 "인간이 가야할 길 가운데 신이 그 으뜸이라"[43] 했다. 따라서 신은 인간이 진리를 얻고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당연히 지니고 있어야 할 덕목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덕목은 수도 자세로서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典經』에 이르기를 "나를 믿고 마음을 정직히 하는 자는 하늘도 두려워 하느니라"[44] 했다. 신을 수행하면 하늘도 두려워할 정도로 성과가 있다. 그러므로 신으로 수도하면 안 될 일이 없다. 신이 있지 않고 수행을 하면 온갖 잡념이 발동하여 그 수행을 방해한다. 이것은 신이 있지 않는 자가 어둡고 온갖 해충, 뱀, 맹수가 들끓는 산길을 걸어갈 때 그 산행을 방해받는 것과 꼭 같다. 얼마 전 통청아카데미 세미나에 참석한 고목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처하는 토굴까지 인적이 없는 먼 산길을

42) 『龍潭遺詞』, 「도수사」 참조.
43) 이재호, 「유학의 수양론과 대순진리의 수도론에 관한 고찰」, p. 323.
44) 『典經』, 교법 2장7절.

그 어두운 밤에 온갖 두려움의 방해를 받지 않고 걸어 갑니다'고 했다.

우리가 신(神)에 대한 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신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확신을 가진다. 이것은 "신명의 보이지 않는 보호 즉 음호"[45]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신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신명이 보호해 주리라 확신하면서 그 일을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다. 또 신을 가지면 자기가 하는 일에도 확신을 가지면서 그 일의 성공을 도모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명이 그 일의 성공을 도와주리라 믿고 또 그 믿음은 그 일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런 신의 효과성을 두고 볼 때, 그럼 신의 어떠한 실천이 있어야할지 알아볼 수 있다. 윤기봉은 그의 논문에서 "도에 신심(信心)을 가지고 상제를 신앙하며 남을 신뢰하고 스스로의 신용을 지키는 것이 바로 신의 실천이라"[46] 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늘의 이치 혹은 천도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상제를 굳게 흠송하면서 믿고, 나아가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신뢰하고 남에 대한 자신의 신용과 자신에 대한 신용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신의 실천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하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더불어 하늘을 주재하는 상제를 진정으로 성실하고 그리고 흠송하는 마음으로 신앙하고, 그 다음 인간 세상에서 이웃에 대한 신뢰와 자기 자신의 신용을 실천해야 한다.

또 "의심 없는 굳은 신"[47]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 의심은 죄라는 말이 있다. 의심하면 모든 정직과 진실이 날아 가버린다. 그리

---

45) 김정태, 「대순진리의 종지에 나타난 신(信)에 관한 이해」, 대순사상학술원, 『대순사상논총』 제11집, 2001, p. 473.

46) 윤기봉, 「삼요체 안에서의 신에 신앙적 의미」, 대순사상학술원, 『대순사상논총』 제11집, 2001, p. 162.

47) 『大巡指針』, p. 54.

고 아무 것도 남지 않는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의심이 있어서는 그 일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일상의 격언이다. 따라서 상제를 신앙할 때 끝까지 한 치의 의심도 없는 굳은 마음으로 신앙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앙의 효과를 백배 얻을 수 있고 상제의 이상세계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또 신을 올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신의 대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48] 신의 대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 신을 한다는 것은 마치 앞을 보지 않고 돌진하는 것과 같은 맹목적이고 충동적인 믿음 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의 방향성과 목적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나아가 올바른 신을 위해서라도 신의 대상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한다. 실로 신의 대상과 "신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수도인은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믿음을 불러일으키게 된다."[49]

신의 실천에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 행동이 없는 신은 공허하고 무용하다. "믿음 없는 행실이 없고 행실 없는 믿음이 없으니, 모든 도인은 행실에서 믿게 하라"[50]고 하듯이 말로만 신을 이행하고 행동으로 신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신은 올바르게 실천되는 것이 아니다. 상제를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는 그 믿음을 실천하지 않을 때, 그 믿음은 온전하지 못하여 그 효력을 충분히 얻지 못하고 상제의 영험도 충분히 얻지 못한다.

또한 신의 실천에는 "일체의 사심과 욕심이 없어야 한다."[51] 신은 가식 없는 순수한 신앙이어야 하고, 상제에 대한 경외심을 토대로 생겨나야 한다. 우리가 돈을 벌거나 권력을 얻기 위한 마음

48) 이승민, 「대순진리회의 신조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p. 30.
49) 위의 논문, 같은 쪽.
50) 『大巡指針』, p. 70.
51) 정대진, 『대순사상논총』제11집, 「신(信)에 대한 이해」, p. 295.

으로 상제를 신앙하거나 상제에게 기원하는 신앙은 온전치 못한 신의 실천이다. 이런 실천은 원시 신앙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저차원적 신앙이고, 상제가 실현하려는 이상세계에 들어가는 길이 아니다. 사심이나 욕심을 가지고 신앙하는 자세는 원시 신앙에서 볼 수 있는 기복신앙 자세이다. 이런 실천은 오히려 상제의 뜻에 반하는 행위이고, 상제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행위라 할 수 있다.

5. 맺음말

앞에서 성·경·신을 옛 고전부터 근대 사상까지 고찰해 보았다. 그래서 성·경·신의 자구적 의미부터 본래적 의미 그리고 근대까지 시대상황 별 실용적 의미도 살펴보았고, 성·경·신의 정신이 초래하는 백성, 민중의 바람직한 태도와 생활신조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나아가 성·경·신의 정신이 신앙의 태도 또는 수도 자세를 기르는데 그 무엇보다도 적합하고 유효함도 알 수 있었다.

성은 천도이고 천의 이치이며 천의 본성이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가꿀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이 성하려 한다면 천도에 이를 것이요 지극한 것을 행할 수 있다. 즉 인간이 성하려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최선을 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성하려는 것은 최고의 길을 가는 것이요, 최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수도 자세로서 성은 자기의 미완을 완성하려는 것이고, 천의 인격을 부여받아 자기 인격을 온전히 하려는 것이며, 그리고 상제에 대한 인간의 가장 올바른 태도이요, 인간이 평소 살아가면서 가져야할 생활태도라 한다.

경은 천에 대한 인간의 바람직한 자세이고, 인간이 성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래서 경은 인간이 천의 본성을 부여받아 자기의 본성을 온전히 하기 위한 자세이며, 천을 바라보고 흠모하며 섬뜩한 전율을 느끼는 공포의 종교적 감정으로 경애하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인간은 하늘을 닮고 상제의 말씀을 전율하듯이 명심으로 받아들인다. 실로 경의 자세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의 마음이 없으면 여러 사심과 욕심에 이끌려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진정성 있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수도 자세로서 경은 상제에 대한 진정한 참된 태도가 되며, 상제의 말씀을 옳고 참되게 받아들일 마음 자세가 된다. 수도 자세로서 경이 없으면 상제의 말씀을 사심과 욕심의 사특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진정하고 진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헛되고 부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신은 어원적으로 '사람과 말', '말한 것을 실천한다'는 것으로 믿음, 언행일치를 의미한다. 이런 믿음을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 오륜·오상 가운데 하나라 했다. 신이 없으면 가정도 친구도 사회도 건전하게 존속할 수 없다. 그리고 신이 없으면 의심과 불안이 팽배해지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이뤄질 수 없고 어떠한 일도 성사할 수 없다. 따라서 옛날부터 신이 가정, 친구, 사회 그리고 나라에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정신태도이며, 남에 대한 자세이며, 사회생활의 덕목이라 한다. 수도 자세로서 신에 따르면, 신이 먼저요 그 다음이 앎이라 한다. "믿음이 없이는 상제의 말씀도 한울님의 말씀도 이해되지 않고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다."[52] 또 상제에 대한 신을 가지지 않으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 일을 열성적으로 하지 못하는 고로 그 일을 온전하게 성사하지 못한다. 신을 가지고 수도할 때 우리는 상제에게 진실한 통로로 다가갈 수 있고, 불신을 가지고 수도한다

52) 『典經』교법 1장 5절: "너희들이 믿음을 나에게 주어야 나의 믿음을 받으리라."

면 우리는 상제에게 왜곡된 통로로 다가가게 된다. 따라서 신을 가지고 수도할 때, 우리는 당연히 상제에게 올바르게 다가가서 참된 가르침과 말씀을 얻고, 참되고 진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성・경・신을 해명해볼 때, 증산사상과 대순진리가 동양의 전통사상으로 내려오고 있는 성・경・신의 사상과 정신을 훌륭하게 잘 이해하고, 그 이해를 토대로 삼아 종교적 정신으로 잘 응용 해석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렇게 해석한 성・경・신을 대순진리교에서는 신앙생활이나 수도생활의 자세로 잘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성・경・신이 신앙인의 수도 자세를 길러주는데 아주 효력 있고 적합하다는 것도 확인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書經』, 『周易』, 『孟子』, 『中庸』, 『栗谷全書』, 『東經大典』, 『二程全書』, 『禮記』, 『儒書』, 『朱子語類』, 『退溪集』, 『說文』, 『論語』, 『華嚴經』, 『龍潭遺詞』, 『典經』,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9.

『大巡指針』,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大巡眞理會要覽』,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진리회 출판부, 1969.

2. 논문

김정태, 「대순진리의 종지에 나타난 신(信)에 관한 이해」, 대순사상학술원, 『대순사상논총』 제11집, 2001, pp. 447-482.

노상래, 「헤테로토피아, 제3의 눈으로 읽는 만주」,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70호, 2014, pp.1-48.

안종운, 「성・경・신 갖춘 人間像論」, 대순사상학술원, 『대순사상논총』 제12집, 2001, pp. 65-103.

안유경, 「대순사상의 성・경・신에 대한 종교적 해석」, 대순사상학술원, 『대순사상논총』 제12집, 2001, pp. 509-538.

이경원, 「성・경・신과 대순수양론 연구」, 대순사상학술원, 『대순사상논총』

제12집, 2001, pp. 183-212.
이승민,「대순진리회의 신조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이재호,「유학의 수양론과 대순진리의 수도론에 관한 고찰」, 대순사상학술원,『대순사상논총』제12집, 2001, pp. 293-339.
이항녕,「성의 현대적 의의」, 대순사상학술원,『대순사상논총』제9집, 2000, pp. 31-72.
유승종,「성·경·신에 나타난 수도론」, 대순사상학술원,『대순사상논총』제12집, 2001, pp. 213-242.
윤기봉,「삼요체의 실천수도론적 의미」, 대순사상학술원,『대순사상논총』제10집, 2000, pp. 214-253.
———,「삼요체 안에서의 신(信)의 신앙적 의미」, 대순사상학술원,『대순사상논총』제11집, 2001, pp. 154-192.
황종원,「대순진리와 동학의 성·경·신 비교 연구」, 대진대학교 대진학술원,『대순진리학술논총』, 2012, pp. 292-388.

3. 단행본
금장태,『유학사상의 이해』, 집문당, 1996.
정대진,『대순사상논총』, 도서출판 一心, 2003.
쓰보이 순에이,『淨土敎槪論』, 도서출판 홍법원, 1996.
최동희 외,『한국의 민속·종교사상』, 삼성출판사, 1997.
최동희·이경원,『대순진리의 신앙과 목적』, 대순사상학술원, 2000.
『대순진리학술논총』제6집-안심·안신 특집호-, 대진대학교 대진학술원, 2010.
『대순진리학술논총』제14집-지상천국건설·세계개벽 특집호-, 대진대학교 대진학술원, 2013.
『儒敎大辭典』, 박영사, 1990.

[日文抄錄]

誠・敬・信の思想的土台と修道の姿勢に関する研究

琴 敎 英

本稿は、誠・敬・信の思想的土台を先に考察し、次にその修道の姿勢について研究している。誠は天の本然の性として、人間の目標とすべきものとして、人間は誠を志向し尊崇する中で自分の本性を全うする。即ち、人間は誠を受けて自分の本性を全うする必要がある。こうした思想を土台にして、甑山思想と大巡真理は、人は誠の姿勢、即ち上帝に対する最上の尊崇の心を持つ時、はじめて上帝のお言葉を完全に聞くことができ理解することもできる、という。したがって人は誠の姿勢を以て信仰し修道をすべきという。また、敬は天の偉大性と威力に対する表現としての畏敬、恭敬である。人は昔から天に対する怖さと尊敬とを持っており、そこで天に逆らったり裏切ったりしようとしなかった。こうした思想を土台にして、甑山思想と大巡真理は、人は敬の姿勢、即ち上帝に対する恭敬と畏敬の心を持つ時、はじめて上帝のお言葉を疑ったりせずに受け入れて実践する、という。したがって人は敬の姿勢を以て信仰し修道をすべきという。そして信は昔から五常の一つとして見做し、対人関係において持つべき一番重要な徳目として考えてきた。また信がなければ何事も成し遂げることができないと考えてきた。こうした思想を土台にして、甑山思想と大巡真理は、信を持つ時、上帝のお言葉を正しく理解でき、真の実践と完全な信仰生活が可能になると言いながら、信の姿勢を以て信仰し修道をすべきという。以上のように、誠・敬・信をその本来の意味と時代的状況による実用的意味とに考察してみる時、それが我が民族宗教の信仰の姿勢及び修道の姿勢に充分活用できるということを見ることができた。

キーワード： 誠, 敬, 信, 天, 上帝, 修道の姿勢, 大巡真理

금교영
소속: 영남대학교 철학과
주소: 경북 경산시 대학로8길 32 109-202호
전화번호: 010-3500-5389
전자우편: kumky@ynu.ac.kr

이 논문은 2014년 7월 24일 투고하여
2014년 8월 1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8월 18일 게재 확정함.